



2027년 국방예산 규모 및 개별사업 지원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8.24. 중앙일보는 「‘트럼프 맞춤형’ 국방예산 72조…핵잠·전작권 관련 포함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리며 처음으로 ‘국방비 70조원 시대’에 접어들 전망”이라며,
 - “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약 71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관계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이다. 올해 국방비 65조 8000억에서 9.0% 증액 편성한 것으로,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(9.9%) 이후 9% 대 상승은 처음이다.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올해 국방비도 전년도에 비해 8.2% 증액한 것이었다.”
 - “정부 예산안에는 ‘장보고 N프로젝트’로 명명한 핵추진잠수함 사업(100억원대)과 전시작전통제권(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(1400억원대)도 포함됐다. 국산 전투기 KF-21 초도 양산 물량 관련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.”
 - “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적 모병제 관련 예산을 비롯한 장병 처우 개선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정부는 현재 '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, 국방예산 규모 및 개별 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배인영 (02-748-53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주영 (isju210@korea.kr)
	기획예산처 국방예산과	책임자	과 장 김동규 (044-214-3150)
		담당자	사무관 이동각 (ldk77@korea.kr)
	기획예산처 방위력강화예산과	책임자	과 장 김민석 (044-214-3170)
		담당자	사무관 정병완 (skipio72@korea.kr)

